

한국농어촌공사 안동지사 '내고향 물살리기'

백한철 기자 cowspig@ksmnews.co.kr 입력 | 수정 2026.06.30 20:52

석방저수지 일대 행사 실시
방치된 수목 부산물 수거
수질보전·환경개선 기여



한국농어촌공사 안동지사 제공



한국농어촌공사 안동지사 제공

[경상매일신문=백한철기자]한국농어촌공사 안동지사는 지난달 26일 안동시 풍천면 소재 석방저수지에서 깨끗한 농업용수 확보와 수질보전을 위한 '경정화의 날' 행사를 실시했다.

이번 행사는 저수지 수질오염을 예방하고 쾌적한 저수지 환경 조성을 위해 마련되었으며, 저수지 주변에 벌목 후 방치된 아카시아 나무 등 수목 정리하고, 시설물 내외부 환경정화와 수질오염 예방을 위한 오염행위 계도활동도 함께 실시했다.

석방저수지는 안동시 풍천면 일대 농경지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중요한 수리시설로,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을 위해 지속적인 시설관리와 수다. 이번 행사는 일반 생활쓰레기 수거보다 저수지 주변 벌목 부산물을 제거하는 데 중점을 두어 저수지 환경 개선과 수질보전에 기여했다. 박승표 안동지사장은 "깨끗한 농업용수는 농업의 기본인 만큼 앞으로도 '내고향 물살리기 환경정화의 날' 행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수질보전하고, 깨끗한 농업용수 공급과 살기 좋은 농어촌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